

슬로시티 운동과 충남의 지역 및 도시 개발에 대한 소고

박헌주 |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머리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와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인류에게 공통으로 다가온 글로벌 트렌드는 도시화이다. 도시화는 인간에게 "빨리 빨리"라는 속도전을 요구했고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인류는 "더 빨리 빨리"를 생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서구 선진국이 100여년 이상에 걸쳐 이룬 도시화와 산업화를 불과 30여 년 만에 이루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였다. "빨리 빨리"문화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도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교통, 주거, 환경문제 등이 일상화되어 있다. 농촌은 인구 유출로 인한 자생력 상실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온 산업화뿐 아니라 도시 개발과 지역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그 대안으로 태동한 것이 슬로시티(slow city), 즉 '느림의 도시 및 지역 개발 운동'이다.

느림이 과거에는 게으르고, 못사는 것의 전형(prototype)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인류 역사 발전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느림이

美學이 되고, 지역 및 도시 개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도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느림"이다. 충청도는 우리나라에서 느림의 대명사이다. 이제는 이 느림이 새로운 지역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글은 슬로시티의 의미와 이를 통한 충청도의 지역 및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슬로시티의 이념과 특징

슬로시티 운동은 이태리語의 치타슬로(cittaslow)에서 시작되었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 고유의 역사적과 전통적 특성을 기초로 여유롭게 생활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지역 개발의 대안모델로 태동된 것이다. 이 운동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산출물인 대량생산체제, 표준화 및 규격화, 기계화된 생활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가 이념적 기초이다. 이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 환경을 위협하는 효율성과 속도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자연적인 삶으로 복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이 운동의 초기 형태는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먹거리에 대한 맛의 표준화,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을 지양하고 지역별 고유의 음식과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화적 추세 운동이 슬로푸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지방 먹거리(local food) 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즉 인간 삶의 총체적 부분인 먹거리에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와 지역 전체의 문화 및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자는 삶에 대한 근본적 전환 운동인 셈이다. 슬로시티 운동은 1999년 10월 15일 슬로시티 운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 등이 슬로시티 선언문을 작성하여 선포하면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슬로시티 기본이념을 담은 슬로시티 현장은 크게 아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 구조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며, 도시의 현대화를 위한 개발 또는 재개발보다는 再生을 중요시 한다.

둘째, 지역 내 전통적, 친환경적 방식의 농특산물 생산과 소비를 지원 장려한다.

셋째, 지역 내 상인들의 보호 및 그들의 생산방식과 생산품을 존중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다섯째, 지역의 커뮤니티가 슬로시티로서의 의식 고양, 홍보, 교육에 주도적으로 이바지한다.

이상의 현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슬로시티 운동은 지역생산품 생산과 소비의 연계 및 전통적 생산방식의 존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지자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슬로시티 운동은 그 모습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이 운동의 기본적 맥락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고속화,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되어지고 있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본래적인 여유로운 생활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운동이다.

충남의 슬로시티 추진방향

슬로시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에 신안, 완도, 담양, 장흥군 등 네 군데 지자체가 이미 슬로시티국제연맹에 가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슬로시티 지정지역이 모두 전남이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며, 대부분 섬으로 구성된 낙후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전남은 이 운동을 낙후지역의 자생적 발전모델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될 수 있었던 배경은 청정환경의 보유 및 유지 의지, 전통 생산방식과 특산품의 보호 육성, 지역 고유의 전통성과 정체성 지속 의지이다.²⁾

슬로시티 지정이 이처럼 지역성과 전통성에 바탕을 둔 이유는 당초 이태리 등 이 운동을 시작한 나라들이 이 운동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생활 습관의 변화보다는 지역 생산품의 소비와 전통의 소비를 강조한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슬로시티 운동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생활 습관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인간성의 회복 운동"으로 전환하여 이를 지역 및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성과 전통성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슬로시티 운동을 대도시권에서 삶에 지친 주민의 휴양과 재충전을 목표로 전개하는 경우 충남은 地經學的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주민생활이 상대적으로 가장 껍박한 지역은 대도시권이고, 특히 수도권이라 할 수 있다.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인구밀집지역과는 교통거리로 1시간 안팎의 最近거리이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8%가 넘는 2,40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틀에 박힌 기계적 문명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지역성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지역에서 여유로운 인간적인 삶을 꿈꾼다. 충남은 슬로시티 운동에 적합한 온천과 사찰, 태안반도처럼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지역적 특성자원이 풍부하다. 이러한 지역 자원을 잠시라도 여유를 갖고 삶을 되돌아보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삶을 재충전하는 장소인 슬로시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즉 충남의 지역 및 도시 발전 기본방향을 근대적 물질문명의 확충보다는 이러한 문명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과거로 복귀하여 여유롭게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며 즐길 수 있는 슬로시티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화사회로 들어선다. 사회의 고령화는 삶의 속도보다 여유가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것이다. 지역 고유의 자원을 문명적 시각에서 개발하기보다는 해당지역의 여건과 지역성, 고유성을 기초로 복원하고 生産產地消費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및 도시 개발 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충남에 散在한 온천과 해안, 사찰, 명산을 도보길이나 자전거길로 연결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를 소비하면서 지역의 특산품과 문화유산, 자연자원을 유람하고, 지역 주민과 더불어 숙박하는 슬로시티는 느림의 브랜드를 가진 충남에 썩 어울리는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라 하겠다. 더욱이 수도권과 사통팔달하는 지역간 대량교통수단이 머무는 지역을 충남 슬로시티의 거점으로 정하는 경우, 旅遊를 원하는 수도권 주민의 충남 슬로시티의 주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조영태 외, "한국형 슬로시티 추진전략", 토지연구 제82호(제24권),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2008. 01.

2) "워글"